

5+2광역경제권의 지역경제력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y of the Regional Economic Power of the Korean 5+2 Mega-regional Economic Zones

박숙진*, 김태현**

한국관광평가연구원*,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Suk-Jin Park(mainzpark@hanmail.net)*, Tae-Heon Kim(eurouni@hanmail.net)**

요약

본 광역권별 경제력 비교분석은 정부의 지역경제정책에 대한 기초연구로서 콜드스타트(cold start)된 5+2광역경제권의 상이한 경제여건과 펀더멘털을 고찰하고 설정된 비교지표를 중심으로 전국 7대 광역권의 지역경제력을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자립적 광역경제권을 육성한다는 정부의 지역경제정책의 타당성과 향후 광역경제권의 정책방향을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경제력지수 비교결과, 수도권의 경제력지수가 절대 우위에 있는 반면 강원권, 호남권, 제주권은 상대적 열위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의 특성과 경제적 펀더멘털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 지역발전 및 광역경제권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한 세심한 배려와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부는 지역경제여건을 감안한 광역경제권사업의 지역안배와 조정을 통하여 지역사업의 중복성 문제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수요분석에 기초한 demand-based policy와 demand-pull policy, 지역낙후성을 감안하여 예산균등화(豫算均等化)정책보다는 비균등화 지원책을 탄력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중심어 : | 지역경제력지수 | 광역경제권 | 지역경제정책 | 표준화기법 | 단위정상법 | AHP |

Abstract

This paper as basic work on the regional economic policy of Korean government considers economic conditions and fundamentals of the cold started 5+2 mega-regional economic zones and makes a comparative study of regional economic power of national mega-regional economic zones based on the established economic indicator.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onsider henceforward policy direction of the mega-regional economic zone and the validity of the regional economic policy, which promote autonomous mega-regional economic zone in dimension to secure the global competitiveness. According to the comparison result of regional economic power index, the capital area had absolute superiority, while Gangwon, Honam and Jeju areas were relatively weak. Since the given regional conditions are dissimilar, the government must consider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economic fundamentals carefully, as they push henceforth regional development policy for the mega-regional economic zone. What is more, the government should promote a balance of the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to maintain demand-based policy and demand-pull policy flexibly, which are based on demand analysis, as well as unequal quota budget and policy for regions, which are relatively falling behind in terms of development and income.

■ keyword : | Regional Economic Power Index | Mega-regional Economic Zone | Regional Economic Policy | Standardization Methods | Unit Normal Scaling | AHP |

I. 서론

2008년 2월에 출범한 실용정부는 기존의 16개 시도 중심의 지역정책을 탈피하여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기치 아래 지역특성화, 지방분권 및 자율, 지역간 상생협력, 그리고 광역경제권 구축을 통해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을 창출한다는 소위 5+2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수행되던 균형발전 계획이나 개별사업을 광역경제권 단위로 통합하여 재조정하고 효율화할 뿐만 아니라, 5+2광역경제권의 자립적 경제공간 육성과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그리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간 공동번영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부연하자면 시도 중심의 행정구역을 넘어 기존 광역자치단체를 2-3개씩 합쳐 규모의 경제나 '연결의 경제' 등과 같은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동시에 지자체 및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지역정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역발전계획 구상이 이처럼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비교우위 중심의 지역간 특화발전을 도모한다는 정책기조를 모토로 하고 있지만, 지역발전계획의 중심에 있는 권역별 광역경제권 발전 계획은 지역특성과 연계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권역간 상호차별성이 배제되어 있어 그로 인한 중복투자의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5+2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지역간 자율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적인 국책사업 선정방식으로 광역경제권내 지자체간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이기주의를 야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연계된 수도권규제완화 발표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소모적 찬반논쟁의 불씨가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대립적 갈등구조를 극복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적 전략과 국민적 역량

집주(集注)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게다가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실업대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와 지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바, 이러한 국가적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정책의 예산 조기집행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밖에도 광역경제권 단위의 운용조직과 역할, 재원 조달 및 예산배분, 사업추진주체 및 사업평가체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광역지자체별로 지역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중앙정부의 중앙집권적 지역정책 운용이 광역경제권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어하고 지역경쟁력을 상실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 광역권별 경제력 비교분석은 정부의 지역경제정책에 대한 기초연구로서 콜드스타트(cold start)된 5+2 광역경제권의 상이한 경제여건과 펀더멘털을 고찰하고 설정된 비교지표를 중심으로 전국 7대 광역권의 지역경제력을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자립적 광역경제권을 육성한다는 정부의 지역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5+2광역경제권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활용한 전문가 설문조사, unit normal scaling을 활용한 표준화기법, 지수 가중치를 설정을 위해 Expert Choice 등을 이용하였다.

II. 광역경제권계획과 선행연구

1. 5+2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5개년계획[17]에 따르면, 수도권은 선진 일류국가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구축을 추진전략으로 삼아 금융, 비즈니스, 물류 등 지식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충청권은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중심, 대한민국 실리콘 벨리를 캐치프레이즈로 삼아 NEW IT·의약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호남권은 21세기

1. OECD(2006)의 「Competitive Cities in the Global Economy」 보고서에 의하면, 대도시 또는 광역권 형성에는 집적경제로 인해 도시규모와 소득간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특화 및 다양성의 혜택이 제공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규모의 경제'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 광역권 인구가 500만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화예술과 친환경 녹색성장의 창조지역 육성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광소재산업을 육성시키고, 동남권은 환태평양시대의 기간산업 및 물류 중심지로서 수송기계·융합부품소재 등의 산업을 육성시키며, 대경권은 전문문화와 첨단 지식산업의 신 성장 지대를 목표로 그린에너지·IT융복합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강원권은 환동해권 관광휴양 및 웰빙산업의 프런티어 추진전략 하에 의료융합·관광산업을 선도산업으로 지정하였으며, 제주권은 몰산업·관광레저산업이 추가 된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7개 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광역권내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도록 한 광역권별 세부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의 특성과 여건이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신규 5+2 광역경제권사업이 기존의 선도산업 및 전략산업과 연계되지 못할 뿐더러 예산규모가 큰 SOC사업들은 원천 배제되는 등 소프트웨어적 광역연계협력사업에 국한되면서 지역특성화가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사업선정권을 중앙정부가 지닌 상태에서 공모제 형식의 사업계획수립을 요구하고 있어 지역특성보다는 우선적으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과 소위 '돈되는 사업'에 권역별 계획이 집중되고 있어 광역권사업의 중복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연계협력사업계획도 지자체별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백화점식 계획나열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가 집단의 연구성과로서의 권역사업계획보다는 자치단체장의 구미에 맞는 사업 중심으로 계획이 줄속으로 수립되고 있는 형국이다[7].

2. 선행연구

광역경제권은 복수의 시·도 행정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공간단위 내부에 기능적 연계성이나 경제·사회·문화·정치 등 다양한 관점에서 공통성을 지닌 하나의 자립적 경제단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광역경제권 개념[14]이 대두된 배경에는 경제의 세계화, 지식기반의 유연성 있는 생산체제 구축, 지역경제 글로벌 경쟁력 함양 등이 그 중심에 있다. Scott & Storper[27]는 광역경제권의 중요성이 대두된 이유로

외부성과 수확체증(increasing returns)에 근거한 광범위한 집적경제의 존재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즉, 광역경제권은 지역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자립형 발전모델을 지향하고 있으며, 하나의 광역경제권 단위를 세계적 경쟁거점으로 구축한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지역혁신체계를 기반으로 산·학·연의 연계를 강조하고 초광역 단위의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에 근거한 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25][22][11][3]. Ohmaef[24]는 광역경제권의 중요성을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경제지역으로서의 정치적 국경선이 아닌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규모의 지역임을 강조하였고, Sassen[26]은 기존의 도시지역에 비해 규모의 우위에 있는 세계도시지역(Global city-regions)이 국가를 대신하는 새로운 경쟁주체로 부상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광역경제권 관련 국내 주요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영출[20]은 초광역경제권을 설정하고 지역경제정책을 수립해가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로 영국의 광역 행정시스템과 지역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gency: RDA)을 분석하였다. 특히, 지역개발청이 수립되기 이전의 각 부처별 광역단위정책들은 파편화되었고 잘 조정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빈약한 정책성과 및 광역지역 내에서 통합정책의 결여를 야기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역개발청이 없는 상태에서는 세부적인 단기적 계획과 분리된 재원자원체계에 치중한 나머지 지역 전체적인 문제에 자원을 집중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정규진·정문기[16]는 광역경제권 정책을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경제적 효과를 동남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는바, 도시 및 지역간의 유출입 통행량과 지역별 산업연계 현황을 기반으로 영향력 지표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도시 협력네트워크의 구조를 파악하였으며, 도시 협력네트워크의 경제적 효과를 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오병기[15]는 광역경제권의 경제변수 및 재정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있는데, 시계열분석과 패널자료 분석을 병행한 결과, 충청권에서는 노동과 소득 사이에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만 동남권에서는 자본과 소득 사이에 양방향의 인과관계

가 존재한다는 차이점 등을 발견하였다. 또한 광역자치단체보다 더 큰 단위의 광역경제권을 포괄하는 재정운용이 시도된 적이 없기 때문에 광역경제권 차원에서 지방세출의 효율적 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지역소득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판명된 일부 경제·재정변수만을 대상으로 인과관계 분석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지역소득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각 광역경제권의 차이를 폭 넓게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박길환[12]은 수도권과 지방광역경제권의 상호의존성에 관한 연구에서 광역경제권으로서 수도권과 지방권역간의 산업구조의 상호의존성이 어떠한 특성과 패턴을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최열·김현[19]은 5+2 광역경제권 설정에 따라 7개 권역간 및 광역경제권역내 16개 도시들 간의 공간연관성을 GRDP와 재정자립도, 토지이용 중에서 경제성을 띄는 공업 및 상업지역비율을 분석변수로 하여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방법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그리고 나주몽[9]은 광역경제권에 있어 산업구조의 격차요인을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DPG(Deviation from Proportional Growth)분석을 통해 규명하면서, 광역경제권을 글로벌 경쟁거점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의 지식기반구축에 과감한 투자가 지속되어야 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산업구조상의 생산성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혁신정책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고, 광역경제권별 특화산업의 활성화 및 광역경제권간 유기적 연계기능의 강화를 강조하였다.

한편, 지역경제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다수가 도시경제력을 분석하고 있을 뿐 광역경제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그 중에서 김영수·김찬준·송우경[6]은 광역경제권에 기반한 지역산업 육성방안에서 광역경제권의 지역경제력을 분석하고 있는데, 연구에서는 소득수준, 혁신역량, 인력기반, 산업발전, SOC/재정력 등 5개 부문에 대한 지수를 산정하여 권역간 비교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모니터그룹[10]은 메가시티 리전(Megacity Region) 경쟁력 평가모델을 자체 개발하여 비교준거로 삼고 있는바,

MCR 경쟁력 평가지표로는 Input요소의 경쟁력, Innovation 경쟁력, 산업클러스터 경쟁력으로 구분되는 경제적 변영부문과, 삶의 질 경쟁력, 사회구조 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장소매력도 부문, MCR내 연계성과 Global Infra 및 Presence를 평가하는 연계성 부문으로 구별하여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글로벌 메가시티 간의 비교에 머무르고 있어 국내 광역경제권의 비교분석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국가지역경제력연구원[4]은 전국을 대상으로 도시경제력을 측정하고 있는데, 한국 도시경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5대 요인(5-Factors)으로 행·재정 및 공공자본, 인적자원, 삶의 질, 인프라 및 생산성, 세계화 등으로 지적하였으며, 강승호·김중협[2]은 도시경제력을 여러 도시와 비교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도시 기능속성을 지닌 도시들, 즉 동종 도시군을 식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동종 도시군을 식별하는 방법으로 다차원분석법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강승호[1]는 동북아 주요도시의 경쟁력에 관한 비교에서 공항, 항만, 관광 등의 인프라 및 활동수준과 같이 국제화여건이 중시되는 국제화거점도시 경쟁력 지표를 활용하여 서울을 포함한 한국 7개 도시, 중국 연해 지역 주요 7개 도시, 일본의 도쿄, 요코하마, 나고야 3개 도시, 그리고 홍콩, 싱가포르 등 총 19개 도시들의 경쟁력을 비교·평가하였다. 분석법으로는 AHP방법을 이용하여 과학적인 가중치를 산출하고 이를 적용하여 각 도시들의 점수를 환산함으로써 경쟁력 순위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김정호[8]는 도시경제력 제고 방안이라는 연구에서 한국의 도시 성장을 시대적으로 조망하고 왜 경쟁력에 있어 뒤질 수밖에 없는지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으며, 도시경제력을 광의의 개념으로 인식할 때 크게 다섯 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는바 시민·경제 및 산업·도시기반시설·환경·거버넌스 등의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III.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①지역경제력 평가지표 선정, ②지표

의 표준화, ③지표별 가중치 산정, ④광역권 지역경제력 평가 등의 분석과정을 거쳐 광역경제권의 지역경제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여기서 지역경제력(regional economic power)이란 특정 지역의 경제발전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역의 경제활동 수준 내지는 역량을 의미하며 이를 반영하는 선정지표의 가중표준화값을 지역경제력지수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1. 지역경제력 관련 지표선정

지역경제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어떠한 지표를 활용하여 광역경제권의 경제력을 평가하느냐이다. 즉 많은 지표들 중에서 어떠한 지표를 선정하느냐에 따라 연구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경제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개발과 방법의 체계화가 매우 중요하다. 그 동안 이루어진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에 의해 많은 지표들이 활용되었다.

표 1. 지역경제력 지표 선정의 원칙

선정원칙	내 용
대표성	-관련지표는 각 부문별 2차 관심영역을 구체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도 내에서 복수의 대표적 항목을 총망라하여 검토 한 후 그 중에서 2차 관심영역을 가장 잘 집약하여 대표할 수 있는 항목을 평가지표로 선정해야 한다.
자료 구축성	-선정항목은 통계자료의 부족으로 자료입수가 용이하지 못하면 도시 간 비교는 물론 포괄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높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측정가능하며 현실여건으로 자료입수가 용이한 항목을 평가 지표로 선정하여야 한다.
비교 객관성	-도시 간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편차가 큰 항목이나 사례 도시 중 일부에서 통계수집이 곤란한 항목은 가급적 배제함으로써 도시 간 비교가 가능하고 통일성을 유지 할 수 있는 항목을 평가지표로 선정해야 한다.
반복성	-선정 항목이 일정 시점에서만 측정 혹은 활용될 수 있거나 특정지역에서만 적용 될 수 있다면 지표항목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간적 변화와 지역적 편중 적용과 무관한 신뢰성이 높은 항목을 선정함으로써 평가지표 선정의 반복성을 확보해야 한다.
단순성	- 평가기관과 피평가 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고 선정항목이 합축하고 있는 의미가 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선정 항목의 단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료: 한국능률협회[21], pp.18-19

본 연구에서는 지표들의 신중한 선정을 위하여 [표 1]과 같이 한국능률협회[21]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쟁력

지표선정의 원칙을 활용하였으며, 지역경제력 평가를 위해 기존연구에서 중복적으로 사용되었던 지표를 1차적으로 선정한 후,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최종 지표를 선정하였다.

2. 지역경제력 지표의 표준화

측정변수들의 단위적인 통일 없이 통계치를 무리하게 비교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통계결과의 편향(bias)을 제거하기 위하여 선정자료의 분석 이전에 단위정상법(unit normal scaling)을 활용한 지표의 표준화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지표의 표준화 단계는 자료의 상대적인 비교를 가능케 하는 필수적 단계라 할 수 있다. 표준화 방식은 일반적으로 Z-score를 구하는 방법을 활용하는바, 본 연구에서도 선정된 지표에 대한 표준화는 Z-Score 값으로 대체하였다. 표준화를 위한 Z-Score 값을 산출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Z_{ji} = \frac{X_{ji} - X_j}{\sigma}$$

단) X_{ji} : i 권역의 j 변량, X_j : 변량 j 의 평균, σ : 변량 j 의 표준편차

3. 지표별 가중치 산정

지표의 표준화 작업이 끝났다 하더라도 지표간의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 변수의 중요한 정도를 평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객관화된 지표값을 구해야 한다. 각 변수들의 가중치 부여는 경쟁력의 순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평가기관별로 나름대로의 방법을 동원하여 가중치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13]. 기존연구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는 가중치 산출법으로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활용하는 AHP분석법과 요인분석을 활용한 통계적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여기서는 가중치를 합리적으로 구하기 위하여 Saaty에 의해 개발된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방법인 AHP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 AHP방법은 의사결정의 계층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간의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하여 평가자의 지식, 경험, 직관을 포착하고자 하는 하나의 새로운 의사결정방법이다[17]. 또한 의사결정요소들의 속성과 그 측정척도가 다양한 다기준 의사결정문제에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의사결정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순위화시키고, 그 가중치를 비율척도(Ratio scale)로 도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5]. 본 연구에서 가중치 산정을 위한 다시 한번 지표간 중요도를 묻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표별 가중치는 선진의사결정 지원 소프트웨어인 Expert Choice를 활용하여 산출하고자 하며, 여기서 산출된 가중치를 이미 계산된 Z-Score 표준화 값에 곱해서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지역경제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IV. 실증분석

1. 지표선정 및 통계자료

본 연구의 지표선정을 위한 1차 작업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 중복적으로 사용된 지표를 수집하여 6개 분야, 즉 6개 상위지표를 선정하였다. 상위지표는 광역경제권의 인력기반, 소득수준, 재정력, 산업발전, 혁신역량, SOC로 구분하였으며, 상위지표 아래 하위지표를 두었다. 즉 인력기반의 하위지표에는 인구성장률, 경제활동인구, 노령화 지수, 초중고 학교 수, 초중고 교사 1인당 학생 수, 전문대 이상 대학 수, 전문대 이상 대학교수 1인당 학생 수 등이며, 소득수준의 하위 지표에는 1인당 GRDP와 1인당 연간소비 지출액으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재정력 부문의 하위지표는 재정규모, 재정자립도, 금융기관 수, 채권(지방채)발행규모, 소비자물가 지수, 4년간 지가변동률 등이며 산업발전 하위지표에는 7년간 경제성장률, 총인구 대비, 총사업체 종사자 수 비중, 총취업자 대비, 제조업종사자 수 비중, 지식기반제조업 종사자비중,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 비중, 전략산업종사자비중을 포함시켰다. 혁신역량 부문에는 총취업자 대비 고급인력 비중, GR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 비중, 인구대비 산업재산권 등록건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SOC부문에 광역권면적, 산업단지 면

적, 입주기업 수, 도로포장율, 도로계수, 총인구 대비 자동차등록대수, 컨테이너 처리실적, 공항접근성을 하위 지표로 선정하였다.

1차 선정된 지표들의 광역경제권 지역경제력 평가지표로서의 적절성에 대해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0년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대학 및 연구소 소속의 전공교수 25명(41.7%), 박사급 연구원 33명(55%), 기타 전문가 2명(3.3%) 등 60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는 9점 척도로 응답분포를 세분화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6개 부문 35개 비교지표 중에서 지표적절도가 7점 이상인 21개의 지표만 최종지표로 선택하였다.

표 2.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 결과

NO	상위 지표	하위지표	적절도	순위	NO	상위 지표	하위지표	적절도	순위
1	인력기반	인구성장률	7.32	13	19	혁신역량	3차 산업 비중	6.53	28
2		경제활동인구	7.53	8	20		총취업자 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중	6.78	25
3		노령화 지수	6.51	29	21		지식기반제조업 종사자 비중	7.56	7
4		초중고 학교 수	5.98	30	22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 비중	7.45	11
5		초중고 교사 1인당 학생 수	5.87	32	23		전략산업종사자 비중	6.92	23
6		전문대 이상 대학 수	7.12	17	24		총취업자 대비 고급인력 비중	7.61	6
7		전문대 이상 교수 1인당 학생 수	7.05	19	25		GRDP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 비중	7.74	4
8	소득수준	1인당 GRDP	8.13	1	26	SOC	인구대비 산업재산권 등록건수	7.22	16
9		1인당 연간소비 지출액	7.89	2	27		광역권면적	5.24	35
10	재정력	재정규모	7.67	5	28	산업단지면적	7.27	15	
11		재정자립도	7.92	9	29	입주기업 수	7.79	3	
12		금융기관 수	7.00	21	30	도로포장율	5.85	33	
13		채권(지방채)발행규모	6.88	24	31	도로계수	7.03	20	
14		소비자물가 지수	6.93	22	32	유호철도계수	5.89	31	
15		4년간 지가변동률	6.57	27	33	총인구 대비 자동차 등록대수	5.36	34	
16		7년간 경제성장률	7.46	10	34	컨테이너 처리실적	7.10	18	
17		산업발전	총인구 대비 총사업체 종사자 비중	7.29	14	35	공항접근성	7.43	12
18	2차 산업 비중		6.76	26					

선정된 6개 부문 21개 지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청, 지역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한국은행,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의 통계자료와 각 시·도 통계연보, 그리고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데이터 베이스 등을 활용하였다. 특히 공항접근성은 권역별

시·군·구 소재지에서 가장 근접한 국제공항까지의 실거리를 Daum.지도를 이용해 측정한 평균값으로 파악하였다.

21개 지표를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수도권은 인구성장률, 재정자립도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순위가 가장 높았으며, 전문대교수당학생수, 인구대비 자동차등록대수에서 순위가 가장 낮았다. 충청권은 1인당 GRDP, 7년간 경제성장률, 지식기반제조업종사자비중, GR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중 등 4개 지표에서 7대 광역권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전략산업종사자비중 지표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경권은 1순위 지표는 없었으며,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수 비중, 컨테이너처리실적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남권은 제조업종사자비중, 컨테이너처리실적, 산업단지면적 등 4개 지표에서 타 광역권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최하위 해당하는 지표는 없었다. 호남권은 7대 광역권 중에서 광역권면적이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성장률, 고급인력비중, 총사업체종사자비중, 7년간 경제성장률 지표에서는 다른 광역권에 비해 그 수준이 가장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권은 전문대교수 1인당 학생 수와 전략산업종사자비중 지표에서 가장 순위가 높았으며, GR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중, 도로 포장률, 공항접근성은 7대 광역권 중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주권은 고급인력비중, 인구대비자동차등록대수, 공항접근성, 도로계수 등 4개의 지표에서 경쟁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 인구 등 기타 지표에서는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7대 광역권 종합평가지표 현황

코드	상위 지표	하위 지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권
A1	인구 기반 (A)	인구성장률(%) ²⁾	0.92	0.32	0.82	-0.15	-15.91	0.22	0.24
A2		경제활동인구 천명 ¹⁾	11,949	644	2,336	2,514	2,369	3,714	289
A3		전문대 이상 학교 수(개)	667	58	204	152	172	156	14
A4		전문대 이상 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명 ³⁾	54	36	47	50	43	46	39
B1	소득 수준 (B)	1인당 GRDP 백만원 ²⁾	18.14	16.8	20.82	17.13	17.52	20.39	14.43
B2		1인당 연간소비 지출액 백만원 ²⁾	10.55	9.01	9.05	9.58	8.83	9.76	8.66
C1	재정력 (C)	재정규모 삼역원 ³⁾	72,210	8,637	20,610	20,048	25,636	28,263	2,696
C2		재정자립도 ²⁾	80.70	28	43.10	41.20	30.40	55.10	25.20
C3		금융기관 수(개) ⁴⁾	3069	113	435	588	485	354	84
D1	산업발전 (D)	7년간 경제성장률 (2001~2007) ²⁾	5.8	4.3	6.3	5.05	4	4.8	4.8
D2		총인구 대비 총사업체 종사자 수 비중 ⁵⁾	33.36	29.45	30.41	29.78	28.05	32.97	31.52
D3		지식기반제조업 종사자비중(%) ⁶⁾	4.89	1.15	7.39	5.64	1.66	3.03	0.14
D4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비중(%) ⁶⁾	12.22	7.51	7.17	5.99	6.78	7.14	7.94
E1		총창업자 대비 고급인력 비중 ⁶⁾	0.80	0.79	0.50	1.05	0.36	0.53	1.64
E2	혁신 역량 (E)	GRDP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 비중 ⁵⁾	4.6	0.8	5.3	2	1.2	1.6	0.9
E3		인구대비 산업재산업 등록건수(건 천명) ⁵⁾	3.8	0.8	3.2	1.5	1.1	1	0.5
F1	SOC (F)	산업단지 면적(km ²) ⁶⁾	122,661	7,795	222,761	157,733	320,831	1,044,441	1,564
F2		입주기업 수(천개) ⁶⁾	1,491	114	315	355	335	533	43
F3		도로계수 (km, / km ²) ⁷⁾	0.06	0.06	0.06	0.06	0.06	0.06	0.1
F4		컨테이너 처리실적 (천TEU/년) ⁸⁾	1,929	6	29	2	158	14,080	43
F5		공항접근성(km) ⁹⁾	30.41	71.63	63.62	40.61	39.4	34.33	3.8

주: 1) 지역발전위원회-지역통계(2008), 2) 통계청(2008), 3) 각 시·도 통계연보(2009), 4)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2008), 5) 한국관광공사-(2008), 6) 한국산업단지공단(2009), 7) 국토해양부-(2009), 8) 해양항만물류정보시스템(2009), 9) Daum지도

2. 선정된 지표의 표준화

[표 3]의 7대 광역권 종합평가지표에 대한 표준화는 언급한바와 같이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Z-Score 값으로 실시하였다. 앞에서 산출식을 소개한 바와 같이 *i* 권역의 *j* 변량 Z-Score 값은 *i* 권역의 *j* 변량에서 변량 *j*의 평균을 차감한 값을 변량 *j*의 표준편차로 나누어 도출될 수 있다. 그 결과 [표 4]와 같은 표준화된 지표를 도출하였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항접근성 지표인바, 공항접근성 표준화 값은 [표 3]의 평균 실측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접근성이 뛰어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임의로 (-)부호를 부여하여 산출하였다.

표 4. 선정된 지표의 표준화 값

코드	상위 지표	하위 지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권
A1	인구 기반 (A)	인구성장률	0.462	0.365	0.446	0.289	-2.264	0.349	0.352
A2		경제활동인구	2.338	-0.755	-0.279	-0.240	-0.281	0.078	-0.862
A3		전문대 이상 학교 수	2.328	-0.729	0.004	-0.257	-0.157	-0.237	-0.950
A4		전문대 이상 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1.563	-1.563	0.347	0.869	-0.347	0.174	-1.042
B1	소득 수준 (B)	1인당 GRDP	0.123	-0.538	1.445	-0.375	-0.183	1.233	-1.707
B2		1인당 연간소비 지출액	1.966	-0.554	-0.489	0.379	-0.849	0.673	-1.127
C1	재정력 (C)	재정규모	2.241	-0.805	-0.232	-0.259	0.009	0.135	-1.090
C2		재정자립도	1.92	-0.79	-0.01	-0.11	-0.67	0.60	-0.93
C3		금융기관 수	2.410	-0.639	-0.307	-0.149	-0.255	-0.391	-0.669
D1	산업발전 (D)	7년간 경제성장률	1.062	-0.947	1.732	0.057	-1.349	-0.277	-0.277

D2	총인구 대비 총사업체 종사자 수 비중	1.437	-0.751	-0.213	-0.566	-1.534	1.219	0.408
D3	지식기반제조업 종사자 비중	0.602	-0.924	1.623	0.909	-0.716	-0.157	-1.337
D4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 비중	2.338	-0.166	-0.346	-0.973	-0.553	-0.362	0.063
E1	중위업종 대비 고급인력 비중	-0.025	-0.050	-0.774	0.599	-1.123	-0.699	2.071
E2	혁신역량 (R) GRDP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 비중	1.326	-0.907	1.737	-0.201	-0.671	-0.436	-0.848
E3	인구 대비 산업재산권 등록건수	1.775	-0.761	1.268	-0.169	-0.507	-0.592	-1.014
F1	산업단지 면적	-0.442	-0.757	-0.141	-0.337	0.154	2.329	-0.806
F2	인주기업 수	2.308	-0.760	-0.312	-0.223	-0.268	0.174	-0.919
F3	SOC (F) 도로개수	-0.41	-0.41	-0.41	-0.41	-0.41	-0.41	2.45
F4	컨테이너 처리실적	-0.081	-0.478	-0.473	-0.479	-0.446	2.427	-0.470
F5	공항접근성	0.490	-1.504	-1.116	-0.003	0.055	0.301	1.777

3. 선정 지표의 가중치 산정결과

Saaty의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방법인 AHP방법을 활용하여 가중치를 구하기 위하여 2차 설문조사를 2010년 7월 28일부터 8월 3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150명의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교수 54명(36.2%), 박사급 연구원 91명(61.1%), 기타 전문가 4명(2.7%)으로부터 유의한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1부는 기업오류로 코딩에서 제외시켰다.

가중치를 산정하기에 앞서 먼저 설문응답자(평가자)가 내린 판단에 전이성(Transitivity), 즉 논리적 모순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17].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비일관성 비율(Inconsistency ratio)의 측정이다. 이 측정방법은 판단자체에서 생기는 실제적인 비일관성 뿐만 아니라 판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를 확인하는데도 유용하다. 일반적으로 비일관성비율이 0.1보다 작아야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본 설문분석에서는 비일관성 비율이 0.01로 나타나 설문응답에 모순이 없이 일괄성을 유지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부문별로는 인력기반이 0.02, 소득수준이 0.00, 재정력이 0.02, 산업발전이 0.00, 혁신역량이 0.00, SOC가 0.01로 각각 나타났다.

설문결과지를 Expert Choice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표 5]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은 상위 및 하위 지표 가중치가 도출되었다. 상위지표의 가중치는 인력기반이 0.182, 소득수준이 0.165, 재정력이 0.170, 산업발전이 0.201, 혁신역량이 0.173, SOC가 0.109로 도출되었고,

부문내 하위계층의 지표 가중치는 재정자립도 0.093, 경제활동인구 0.084, 1인당 연간소비 지출액 0.083, 1인당 GRDP 0.082, GRDP 대비 R&D투자비 비중 0.079 순으로 분석되었다.

표 5. 상위지표 가중치 산정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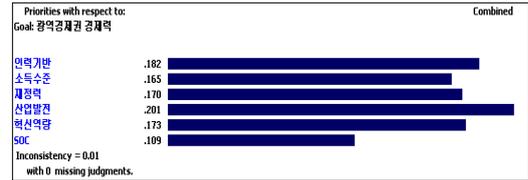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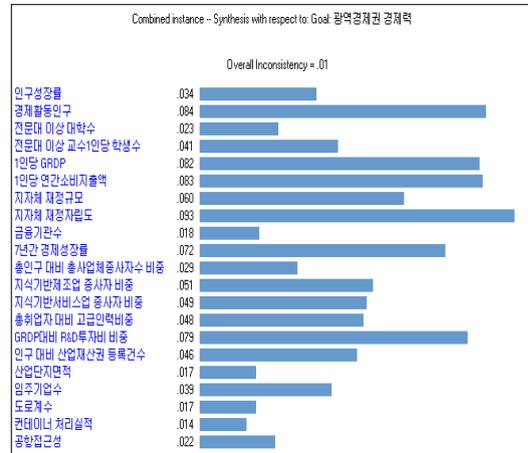


표 6. 하위지표 가중치 산정결과



4. 광역경제권의 경제력 종합평가

[표 6]에서 산출된 하위지표의 가중치를 [표 4]의 표준화 지표값에 곱하여 [표 7]을 산출하였다. 즉, [표 7]의 광역경제권 경제력 평가 결과치는 각 권역의 원자료를 상호비교가능하게 표준화함과 동시에 지표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 부여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도출해낸 권역간 경제력 비교가능지수이다.

5+2광역경제권의 경제력을 종합해 보면, 수도권이 1.396로 선두를 차지하고 있고, 충청권이 0.352, 동남권이 0.210, 대경권이 -0.046, 제주권이 -0.587, 호남권이 -0.627, 강원권이 -0.634로 분석되었다. 권역별 특징을 살펴보면 [표 7]과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도권은 모든 지표에서 절대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충청권은

SOC지수에서 -0.053으로 7대권역중 6위에 그친 반면 여타부문에서 2~3위권에 속하는 경제력을 보이고 있다. 동남권은 혁신역량부문에서 -0.095로 5위를 기록한 반면 여타분야에서는 상위권의 경제력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경권은 SOC부문에서 5위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중위권을 유지하였다. 제주권은 SOC부문과 혁신역량 부문에서 선전하며 중하위권의 경제력을 보이고 있다. 호남권은 SOC부문에서 중위권을 유지하였으나 산업발전 및 혁신역량 부문에서 절대열위 경제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강원권은 SOC 및 인력기반 부문을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경제력 열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 5+2광역경제권의 경제력 종합평가결과

지 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권
인력기반							
인구성장률	0.016	0.012	0.015	0.010	-0.077	0.012	0.012
경제활동인구	0.196	-0.063	-0.023	-0.020	-0.024	0.007	-0.072
전문대 이상 학교 수	0.054	-0.017	0.000	-0.006	-0.004	-0.005	-0.022
전문대 이상 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	0.064	-0.064	0.014	0.036	-0.014	0.007	-0.043
소계	0.330	-0.132	0.006	0.020	-0.119	0.021	-0.125
경제력							
1인당 GRDP	0.010	-0.044	0.118	-0.031	-0.015	0.101	-0.140
1인당 연간소비 지출액	0.163	-0.046	-0.041	0.032	-0.071	0.056	-0.094
소계	0.173	-0.090	0.077	0.001	-0.086	0.157	-0.234
산업발전							
재정규모	0.135	-0.048	-0.014	-0.016	0.001	0.008	-0.065
재정자립도	0.179	-0.074	-0.001	-0.010	-0.062	0.056	-0.087
금융기관 수	0.043	-0.012	-0.006	-0.003	-0.005	-0.007	-0.012
소계	0.357	-0.134	-0.021	-0.029	-0.066	0.057	-0.164
혁신역량							
7년간 경제성장률	0.077	-0.068	0.125	0.004	-0.097	-0.020	-0.020
중인구 대비 총사업체 종사자 수 비중	0.042	-0.022	-0.006	-0.016	-0.045	0.035	0.012
자식기업제조업 종사자비중	0.031	-0.047	0.083	0.046	-0.037	-0.008	-0.068
자식기업서비스업 종사자비중	0.115	-0.008	-0.017	-0.048	-0.027	-0.018	0.003
소계	0.265	-0.145	0.185	-0.014	-0.206	-0.011	-0.073
SOC							
총취업자 대비 고급인력 비중	-0.001	-0.002	-0.037	0.029	-0.054	-0.034	0.099
GRDP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 비중	0.105	-0.072	0.137	-0.016	-0.053	-0.034	-0.067
인구대비 산업재산권 등록건수	0.082	-0.035	0.058	-0.008	-0.023	-0.027	-0.047
소계	0.186	-0.109	0.158	0.005	-0.130	-0.095	-0.015
산업단지 면적	-0.008	-0.013	-0.002	-0.006	0.003	0.040	-0.014
입주기업 수	0.090	-0.030	-0.012	-0.009	-0.011	0.007	-0.036
도로개수	-0.007	-0.007	-0.007	-0.007	-0.007	-0.007	0.042
컨테이너 처리실적	-0.001	-0.007	-0.007	-0.007	-0.006	0.034	-0.007
공항공정근성	0.011	-0.033	-0.025	-0.000	0.001	0.007	0.039
소계	0.085	-0.090	-0.053	-0.029	-0.020	0.081	0.024
종합경제력지수	1.396	-0.634	0.352	-0.046	-0.627	0.210	-0.5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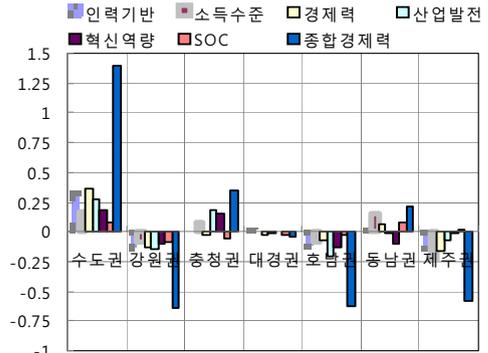


그림 1 : 5+2광역경제권 종합경제력

상위지표별로 살펴보면, 인력기반의 경우 수도권 0.330에 이어 동남권과 대경권이 각각 0.021, 0.020으로 높았으며 강원권, 제주권과 호남권이 각각 -0.132, -0.125, -0.119로 저조하였다. 소득수준은 수도권이 0.173, 동남권이 0.157로 경합을 다투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충청권 0.077, 대경권 0.001을 기록하였다. 재정력은 수도권과 동남권이 0.357, 0.057로 (+)값을 가진 반면 나머지 광역권에서는 (-)값을 기록하였다. 산업발전 측면에서는 수도권 0.265에 이어 충청권이 0.185를 기록한 반면 강원권은 -0.145로 낮게 측정되었다. 한편 혁신역량지수는 수도권 0.186, 충청권 0.158, 대경권 0.005, 제주권 -0.015 순으로 높았으며, SOC지수는 수도권 0.085, 동남권 0.081, 제주권 0.02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V. 결론

지금까지 전문가 설문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력 지표를 설정하고 지표별 통계의 표준화 작업과 가중치 산정을 통하여 권역별 경제력지수를 산출하였다. 지수 비교 결과, 종합경제력지수가 (+)값으로 나타난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이 순서대로 1위, 2위, 3위를 차지한 반면, 종합경제력지수가 (-)값으로 나타난 대경권, 제주권, 호남권, 강원권은 나열순으로 각각 4위에서 7위를 기록하였다. 이로써 수도권의 경제력지수가 절대 우위에 있는

반면 강원권, 호남권, 제주권은 상대적 열위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5+2광역경제권간에 경제력 격차가 크게 존재할 뿐만 아니라 부문간에도 현격한 발전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광역경제권간 격차가 가장 큰 부문은 재정규모와 재정자립도 등이 포함된 재정력 부문이었고 격차가 가장 작은 부문은 SOC부문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산업연구원[6]의 연구결과에서도 부분적으로 강조된 바와 같이 모든 산업부문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인력기반과 혁신역량 부문의 편차 또한 크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상대적으로 취약한 강원권과 제주권, 호남권에 대한 인력기반을 확충하고 혁신역량을 제고할 사업을 지역발전차원에서 전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인력의 유동성을 확고하기 위하여 혁신자원의 네트워크화 및 연계협력사업 등이 이 지역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역경제력지수에서 지역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은 SOC부문이라 할지라도 충청권의 경우와 같이 타지역에 비해 비교열위이고, 권역내 여타부문에 비해 절대열위인 SOC부문(일례로 공항접근성)이 존재할 경우에는 지역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권역 연계협력사업 중에서도 SOC부문의 개선사업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권역별 지역경제력지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각 지역은 지역 나름대로의 특성과 경제적 펀더멘털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 지역발전 및 광역경제권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한 세심한 배려와 발전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5+2광역경제권 중에서 수도권, 광역경제권 역내에서의 광역시와 같이 충분한 수요(잠재수요)가 내재되어 있으며 경제력지수가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수요기반 지역정책(demand-based region policy)을, 경제력지수가 상대적으로 비교열위인 지역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수요인인 지역정책(demand-pull region policy) 및 광역경제권 전략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SOC와 같이 예산규모가 큰 부문의 사업일 경우 지역낙후성을 감안하여 지역별 예산균등할(豫算均等割)지원보다는 비균등할(非均

等割) 지원책을 탄력적으로 사용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한 차등보조율을 적용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지역발전위원회와 지식경제부는 광역경제권사업의 중복성 문제를 해소하고 예산활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경제여건을 감안한 광역경제권사업의 지역안배와 조정을 통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하도록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광역경제권 지역경제상황을 비교하고 이를 통한 광역경제권 정책방향 제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시계열분석을 통한 권역별 경제력지수의 변화추이를 동시에 고찰하지 못한 점과 자료 확보의 제한성으로 인해 부문별로 더 많은 비교지표를 활용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바, 이는 후속연구에서 추후 보완코자함을 밝혀둔다.

참 고 문 헌

- [1] 강승호, “동북아 주요도시의 경쟁력에 관한 비교”, 한국동북아경제학회, Vol.20, No.1, pp.1-23, 2008.
- [2] 강승호, 김중협, “다차원분석법을 이용한 인천 도시경쟁력 비교 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 Vol.12, No.3, pp.97-109, 2008.
- [3] 권오혁, “네트워크도시의 연계구조와 발전전략”, 공간과 사회, 2006.
- [4]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 조사 연구, 2007.
- [5] 김대관, 박양우, 이상민, “AHP를 활용한 관광자원개발사업 평가: 계획단계 사업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Vol.21, No.4, 2007.
- [6] 김영수, 김찬준, 송우경, 광역경제권에 기반한 지역산업육성방안, 산업연구원, 2008.
- [7] 김은경, “광역경제권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 영국의 경험으로부터의 시사점”, 한국EU학회, Vol.14, No.1, pp.43-70, 2009.
- [8] 김정호, “우리나라 도시경쟁력 평가와 시사점”, 대한부동산학회, pp.9-29, 2007.

[9] 나주몽, “광역경제권에 있어 산업구조의 격차요인 : 수도권과 지방간의 DPG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 Vol.20, No.4, pp.1-30, 2008.

[10]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 모니터그룹, *미래의 경쟁력 메가시티*, 2009.

[11] 박경, *주요국의 지역정책*, 한국산업기술재단, 2008.

[12] 박길환, “수도권과 지방광역경제권의 상호의존성에 관한 연구: 광역경제권간 산업연관의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 Vol.23, No.2, pp.133-178, 2009.

[13] 박재룡, 박용규, “도시경쟁력 평가지침의 발전방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7.

[14] 안영훈, “광역경제권의 개념, 유형 및 거버넌스 체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working paper 2008-1. 2008.

[15] 오병기, “광역경제권의 경제변수 및 재정변수 사이의 인과관계 분석”, 한국지방재정학회, Vol.13, No.1, pp.93-123, 2008.

[16] 정규진, 정문기, “광역경제권 정책을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경제적 효과분석: 동남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pp.313-339, 2010.

[17] 조근태, 조용근, 강현수,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동현출판사, 2005.

[18]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5개년계획*, 2009.

[19] 최열, 김현, “광역경제권 설정을 고려한 지역경제성장과 토지이용에 관한 공간연관성 분석”, 대한토목회, Vol.28, No.5, pp.713-721, 2008.

[20] 최영출, “주요 선진국의 광역경제권 전략: 영국의 광역과제 대응을 위한 행정시스템-지역개발청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pp.31-53, 2008.

[21] 한국능률협회, “한국의 도시경쟁력평가에 관한 연구”, 1999.

[22] Cooke, Philip, “Regional Innovation Systems: Competitive Regulation in the New Europe”, *Geoforum*, 23, 1992.

[23] OECD, *Competitive Cities in the Global*

Economy, 2006.

[24] Ohmae and Kenichi, “The Rise of the Region State”, *Foreign Affairs*, Vol.72, No.2, Spring, 78-87 248(10). 1993.

[25] Porter, Michael, *On Competiti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998.

[26] Sassen, Saskia, *The Global City: New York, London, Tokyo*, 2nd e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27] Scott, Allen and Storper, Michael, “Regions, Globalization, Development”, *Regional Studies*, Taylor and Francis Journals, Vol.37(6-7), pages 549-578, 2003(8).

저 자 소 개

박 숙 진(Suk-Jin Park)

정회원



- 2001년 2월 : University Mainz (경영학석사수료)
- 2004년 2월 : 경기대학교대학원 관광경영학과(관광학박사)
- 2004년 ~ 2008년 : 한세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 2008년~현재 : 한국관광평가원 연구위원

<관심분야> : 관광경제, 관광정책, 문화관광, 관광학 연구조사방법론

김 태 현(Tae-Heon Kim)

정회원



- 2000년 11월 : University Regensburg(경제학박사)
- 2004년 ~ 2005년 : 한국무역협회 선임연구위원
- 2005년 ~ 2007년 :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관심분야> : 국제경제학, 경제정책, 지역경제학